

사회



지난 23일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7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발표회에서 수피아여고 군무팀이 멋진 현대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광부장관상 광주예고 서정민양

제 57회 호남예술제 시상식...최고상 작품발표회도

광주일보사 주최 제57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와 시상식이 지난 23일 오후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한국무용의 손민한(광주예고 2년)군과 발레 부분의 이누리(동아여고 1년)양 등 개인별 수상자와 남경초 합창, 송원초 사물놀이, 바이올린 뮤직스쿨, 송원초 발레 군무 등 단체 부문 최고상 수상팀이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발표회에 이어 열린 시상식에서는 플루트의 서정민(광주예고 3년)양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바이올린의 송혜빈(광주수피아여중 3년)양이 국회의장상을 받는 등 모두 33명이 개인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또 광주송원초, 광주동아여중, 광주예고가 종합 최고상을 수상했으며 살레시오초, 전남중, 전주예고는 종합 우수상을 받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전남 교육청 일반직 인사 단행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각각 일반직 공무원 243명, 434명에 대해 오는 7월1일자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명단 18면> 시교육청은 김향근 교육연구원 행정연구부장을 보청 행정국장으로, 심행선 교육협력담당을 4급 서기관으로 각각 승진 발령했다. 김병주 정보원 관리과장은 연구원 행정연구부장으로 승진했다. 신임 김 행정국장은 30년이 넘는 교육행정 경력에다 호방하고 직업을 서슴지 않는 성격으로 공직 후배들의 신망이 깊다.

도교육청은 한태희 행정국장을 3급 부이사관으로, 이한근 행정과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목포공공도서관장으로 발령했다. 분청 방과후학교지원단 이양재 운영지원부장이 광양평생교육관장으로 전보되는 등 4급 서기관 3명이 자리를 옮겼다.

재무과 한동호 경리담당과 김기오 사화담당은 4급으로 승진, 방과후학교지원단 운영지원부장과 정책기획담당과 제도개선담당을 맡게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a table of regional weather forecasts, and a 7-day outlook.

저수율 30% 미만 저수지 371곳 대대적 준설 양수기·관정 등 총동원...11년만에 대책본부

광주·전남 극심한 가뭄피해 현황과 대책

6월 하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장마전선이 더디게 북상하면서 가뭄이 지속돼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 가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장마전선이 일시 활성화되면서 발달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린 비는 여수 평도 47mm를 최고로 신안 지도 43.5mm, 흑산도 21.5mm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 밖의 지역은 진도 11.5mm, 완도 9.5mm, 목포 5.5mm, 여수 3.9mm 등 10mm 내외로 기나긴 가뭄해갈에는 크게 부족했다. 지난 5~6월 사이 내린 비는 광주가 109.2mm, 전남(목포·여수·완도·순천·흑산도 등 주요지점) 77mm로 평년(광주 278.1mm·전남 320.88mm)에 비해 39%, 23% 수준에 그쳤다. 기상청은 지난 5월부터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정체하면서 비구름이 접근하지 못해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온현상까지 겹쳐 피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서해안 피해 심각>=기상청이 제공하는 가뭄지수(파머 가뭄지수)에 따르면 광주를 비롯해 순천을 제외한 전남 21개 시군이 '가뭄' 단계로 조사됐다. 가뭄 단계는 작물에 다소 피해가 발생하고, 물부족이 시작돼 질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남지역 저수지 317개소는 저수율 30% 이하로 심각한 수준이며, 이 가운데 33개소는 이미 고갈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뭄피해가 가장 심한 충남을 비롯해 전남 지역의 가뭄면적은 3만 6000ha 수준으로 영농급수 및 강우 부족으로 인한 전체 저수율은 49%수준으로 평년(56%)에 비해 급격히 떨어졌다. <대책>=전남도는 부족한 농업용수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저수율

이 30% 미만인 저수지의 대대적인 준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로부터 현재까지 모두 13억 60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이와 별개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뭄 상습 지역의 농업용수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와 간척지 내 담수로의 퇴적토 준설과 하상굴착 등에 필요한 사업비 110억원의 지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이와함께 일선 시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한 양수기 5853대, 송수호수 655km, 관정 5115공 등 급수장비를 총 동원해 농가 자율급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11년만에 가뭄대책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해갈은 언제?>=애초 이달 하순부터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머무르면서 장마가 늦어지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튼튼한 안보만이 화해협력 지름길

성인 63%·청소년 51% "내 안보의식 높다"

성인의 63.3%, 청소년의 51.1%가 자신의 안보의식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 12일간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과 청소년(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에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성인의 경우 56.4%가 '더 높아졌다'고 답했고 '큰 변화 없다' 34.3%, '더 낮아졌다'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도 '더 높아졌다'가 52.7%로 가장 많았고, '큰 변화 없다' 36.4%, '더 낮아졌다' 7.3% 등의 순이었다. /연남스

공사 소음 피해 양봉농가에 3200만원 배상 결정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4일 "양봉업을 하는 주민이 인근 지방도로 공사 현장의 소음으로 인해 양봉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사건에서 피해를 인정하고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화순군에서 30여년 전부터 양봉하던 중 지난해 8월부터 양봉장과 20~100m 떨어진 곳에서 한 건설업체가 밤을낮도 설치하지 않고 기

준 교량 철거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꿀벌의 폐사 및 사라짐, 산란중지, 로알레리 생산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85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분쟁조정위는 최고 78dB(A)인 평가소음도와 양봉 전문가 현직조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신청인이 꿀벌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직업 허위 기재면 보험금 안줘도 된다"

피보험자가 위험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보험을 든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택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A씨가 H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보험계약 때 남편 직업에 관한 사실·정황을 위함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단순 사무직이라고 허위 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남편을 피보험자로 1억원짜리 사망보험을 들면서 남편 직업을 사무직으로 적었고, 이듬해 남편이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연남스

Advertisement for ACCMA (Anti-Corruption Citizens' Movement) in Gwangju, featuring a photo of Park Gil-mu and details of a commemorative event.